

2021년 1분기 창원시 고용동향

2021. 1

창원상공회의소

I. 조사개요

1. 조사목적

-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창원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,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조사방법

-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
 -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,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.
 - 고용보험DB 법적근거
 -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(고용보험통계: 승인번호 제327002호)
 - 피보험자의 포괄범위
 -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‘상용’, ‘계약직’인 근로자 단,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15시간) 미만인 자, 국가·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
 -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
 -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,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
 -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, 포괄하지 않은 부분(자영업자, 미가입자,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등)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
 -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

3. 조사기간

- 2021년 4월 26일 ~ 28일

4. 조사사항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규모별, 업종별)
-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
-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(규모별, 업종별)

II. 창원시 고용동향

1. 창원시 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 현황

- 2021년 1분기 말 기준 창원지역 고용보험¹⁾에 가입 상시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, 일용직 근로자 제외) 수는 25만 4,31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.2%(2,897명) 증가하였음.
- 규모별로 ‘300인 이상 사업장’ 근로자 수가 3.3% 증가한 6만 1,937명, ‘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’ 3만 4,620명(+2.7%), ‘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’ 9만 3,790명(+1.4%)임. ‘10인 미만 사업장’ 근로자 수는 2.0% 감소한 6만 3,968명을 기록했음.
-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근로자 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,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일감증가로 선제적으로 인력충원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.

창원시 규모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 동기 대비)

(단위 : 명)

| | '18 | '19 | '20 | | | | '21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1Q | 1Q | 1Q | 2Q | 3Q | 4Q | 1Q |
| 전 체 | 245,764 (0.8%) | 253,110 (3.0%) | 251,418 (-0.7%) | 251,440 (-0.1%) | 255,260 (1.5%) | 252,941 (-0.1%) | 254,315 (1.2%) |
| 10인 미만 | 60,477 (4.0%) | 61,386 (1.5%) | 65,262 (6.3%) | 65,861 (5.5%) | 67,717 (6.1%) | 69,393 (6.8%) | 63,968 (-2.0%) |
| 10인 이상 100인 미만 | 92,446 (0.0%) | 96,622 (4.5%) | 92,469 (-4.3%) | 92,289 (-1.4%) | 92,793 (-0.3%) | 92,220 (-0.4%) | 93,790 (1.4%) |
| 100인 이상 300인 미만 | 34,051 (0.7%) | 35,965 (5.6%) | 33,725 (-6.2%) | 33,144 (-1.9%) | 33,349 (-0.4%) | 32,438 (-2.2%) | 34,620 (2.7%) |
| 300인 이상 | 58,790 (-1.1%) | 59,137 (0.6%) | 59,962 (1.4%) | 60,146 (-2.9%) | 61,401 (0.2%) | 58,890 (-5.4%) | 61,937 (3.3%) |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*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- 1)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(고용보험법 제8조, 10조 및 령 제2조, 제3조)
-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(단,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)
 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
 -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, 단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에 가입할 수 있음.
 -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
 -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
 - 외국인근로자(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,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)

2. 창원시 업종별 근로자 현황

- 업종별(대분류)로 서비스업과 건설업 근로자 수는 증가하였고, 제조업과 기타 업종은 감소하였음.
- 2021년 1분기 말 기준 창원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13만 2,9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.0% 증가하였고, 건설업은 1.7% 증가하였음.
- 제조업 근로자 수는 10만 8,13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9% 줄었으며, 기타 업종은 4.7% 감소하였음.

창원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 동기 대비)

(단위 : 명)

| | '18 | '19 | '20 | | | | '21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1Q | 1Q | 1Q | 2Q | 3Q | 4Q | 1Q |
| 전 체 | 245,764 (0.8%) | 253,110 (3.0%) | 251,418 (-0.7%) | 251,440 (-0.1%) | 255,260 (1.5%) | 252,941 (-0.1%) | 254,315 (1.2%) |
| 제조업 | 110,883 (-0.7%) | 110,114 (-0.7%) | 109,126 (-0.9%) | 106,694 (-2.5%) | 106,709 (-1.6%) | 107,552 (-0.2%) | 108,133 (-0.9%) |
| 서비스업 | 121,222 (2.6%) | 129,461 (6.8%) | 129,077 (-0.3%) | 131,551 (2.0%) | 135,120 (4.1%) | 132,240 (0.1%) | 132,964 (3.0%) |
| 건설업 | 10,330 (-3.0%) | 10,131 (-1.9%) | 9,740 (-3.9%) | 9,878 (-1.1%) | 9,886 (-0.7%) | 9,934 (-0.4%) | 9,906 (1.7%) |
| 기 타 | 3,329 (1.6%) | 3,404 (2.3%) | 3,475 (2.1%) | 3,317 (1.5%) | 3,545 (3.1%) | 3,215 (-7.6%) | 3,312 (-4.7%) |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서비스업은 '도매 및 소매업', '운수 및 창고업', '숙박 및 음식점업', '정보통신업', '금융 및 보험업', '부동산업', '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', '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', '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', '교육 서비스업', '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', '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', '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'을 포함하고 있으며, 기타는 '농업, 임업 및 어업', '광업', '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', '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', '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', '국제 및 외국기관'을 포함함.

- 창원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'기계 및 장비'가 2만 9,175명으로 가장 많았고, '자동차 및 트레일러' 1만 6,976명, '전기장비' 1만 6,794명, '1차 금속' 9,496명, '기타 운송장비' 8,721명 순임.
- 전반적인 제조업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, '전기장비', '전자부품·컴퓨터·통신장비 등', '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등' 전자부품 관련분야는 꾸준히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.

창원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(전년 동기 대비)

(단위 : 명)

| | '18 | '19 | '20 | | | | 1Q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1Q | 1Q | 1Q | 2Q | 3Q | 4Q | |
| 제조업 | 110,883 (-0.7%) | 110,114 (-0.7%) | 109,126 (-0.9%) | 106,694 (-2.5%) | 106,709 (-1.6%) | 107,552 (-0.2%) | 108,133 (-0.9%) |
| 기계 및 장비 | 31,501 (3.7%) | 30,988 (-1.6%) | 29,745 (-4.0%) | 29,256 (-5.3%) | 29,014 (-4.9%) | 29,284 (-2.6%) | 29,175 (-1.9%) |
| 자동차 및 트레일러 | 18,527 (-3.2%) | 17,968 (-3.0%) | 16,753 (-6.8%) | 16,663 (-5.8%) | 16,518 (-6.0%) | 16,770 (-3.8%) | 16,976 (1.3%) |
| 전기장비 | 12,729 (1.4%) | 12,843 (0.9%) | 15,842 (23.4%) | 15,383 (18.9%) | 16,070 (27.1%) | 16,328 (27.4%) | 16,794 (6.0%) |
| 1차 금속 | 12,273 (-1.8%) | 11,446 (-6.7%) | 10,803 (-5.6%) | 9,883 (-12.9%) | 9,664 (-14.3%) | 9,667 (-13.2%) | 9,498 (-12.1%) |
| 기타 운송장비 | 9,855 (-13.2%) | 10,113 (2.6%) | 9,768 (-3.4%) | 9,615 (-4.0%) | 9,488 (-4.5%) | 8,981 (-9.8%) | 8,721 (-10.7%) |
| 금속가공 (기계·가구제외) | 8,000 (-2.1%) | 8,070 (0.9%) | 7,851 (-2.7%) | 7,722 (-3.6%) | 7,742 (-2.5%) | 7,920 (-0.1%) | 7,853 (0.0%) |
| 전자부품·컴퓨터·통신장비 등 | 6,134 (3.1%) | 6,354 (3.6%) | 6,357 (0.0%) | 6,380 (-0.3%) | 6,375 (0.0%) | 6,535 (3.5%) | 6,916 (8.8%) |
| 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등 | 3,319 (0.3%) | 3,476 (4.7%) | 3,579 (3.0%) | 3,470 (0.7%) | 3,490 (1.1%) | 3,566 (-0.6%) | 3,605 (0.7%) |
| 고무·플라스틱 제품 | 1,812 (-3.8%) | 1,797 (-0.8%) | 1,722 (-4.2%) | 1,728 (-1.6%) | 1,736 (-0.4%) | 1,756 (1.6%) | 1,826 (6.0%) |
| 식료품 | 1,493 (-11.7%) | 1,651 (10.6%) | 1,624 (-1.6%) | 1,608 (-1.6%) | 1,621 (-4.5%) | 1,680 (-0.2%) | 1,671 (2.9%) |
| 기타 | 5,240 (9.7%) | 5,408 (3.2%) | 5,082 (-6.0%) | 4,986 (-6.5%) | 4,991 (-5.2%) | 5,065 (-1.5%) | 5,098 (0.3%) |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기타 제조업은 '가구', '가죽·가방 및 신발', '목재 및 나무제품(가구제외)', '비금속 광물제품', '섬유제품(의복제외)', '음료', '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', '의복·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', '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', '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의약품 제외)'을 포함함.

- 창원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'이 3만 5,928명으로 가장 많았고, '도매 및 소매업'(1만 5,006명), '사업시설 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'(1만 3,886명), '전문, 과학 및 기술'(1만 2,774명), '운수 및 창고업'(1만 290명), '교육'(8,820명), '숙박 및 음식점업'(8,454명)이 뒤를 이었음.

창원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추이(전년 동기 대비)

(단위 : 명)

| | '18 1Q | '19 1Q | '20 | | | | '21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| | 1Q | 2Q | 3Q | 4Q | 1Q |
| 서비스업 | 121,222 (2.6%) | 129,461 (6.8%) | 129,077 (-0.3%) | 131,551 (2.0%) | 135,120 (4.1%) | 132,240 (0.1%) | 132,964 (3.0%) |
| 보건업· 사회복지 | 29,526 (3.8%) | 31,907 (8.1%) | 33,852 (6.1%) | 34,784 (6.0%) | 35,433 (5.9%) | 35,436 (5.0%) | 35,928 (6.1%) |
| 도·소매업 | 14,216 (3.4%) | 14,361 (1.0%) | 14,479 (0.8%) | 14,783 (0.1%) | 14,920 (1.6%) | 14,853 (1.2%) | 15,006 (3.6%) |
| 사업시설 관리·지원 | 16,547 (5.3%) | 15,182 (-8.2%) | 14,549 (-4.2%) | 14,047 (-8.2%) | 13,803 (-6.7%) | 13,889 (-5.4%) | 13,886 (-4.6%) |
| 전문, 과학·기술 | 11,115 (-5.0%) | 11,635 (4.7%) | 12,221 (5.0%) | 12,404 (5.3%) | 12,573 (5.8%) | 12,937 (8.1%) | 12,774 (4.5%) |
| 운수·창고 | 10,600 (2.5%) | 10,978 (3.6%) | 10,604 (-3.4%) | 10,529 (-4.3%) | 10,419 (-5.3%) | 10,225 (-6.2%) | 10,290 (-3.0%) |
| 교육 | 7,056 (1.4%) | 7,787 (10.4%) | 8,307 (6.7%) | 8,751 (3.9%) | 8,846 (4.3%) | 8,841 (1.9%) | 8,820 (6.2%) |
| 숙박·음식점 | 7,131 (14.3%) | 7,915 (11.0%) | 8,533 (7.8%) | 8,547 (4.2%) | 8,785 (3.7%) | 8,622 (-2.0%) | 8,454 (-0.9%) |
| 공공·국방· 사회보장 | 4,890 (11.1%) | 8,782 (79.6%) | 5,122 (-41.7%) | 5,957 (7.5%) | 8,058 (51.8%) | 5,632 (-19.3%) | 6,193 (20.9%) |
| 협회·단체, 수리·기타 | 5,645 (-5.9%) | 5,842 (3.5%) | 5,728 (-2.0%) | 5,884 (1.7%) | 5,986 (4.2%) | 5,760 (1.5%) | 5,959 (4.0%) |
| 부동산 | 4,941 (1.8%) | 5,139 (4.0%) | 5,474 (6.5%) | 5,525 (6.8%) | 5,823 (6.6%) | 5,605 (3.8%) | 5,607 (2.4%) |
| 금융·보험 | 5,168 (-0.4%) | 5,164 (-0.1%) | 5,126 (-0.7%) | 5,161 (-0.3%) | 5,160 (-0.4%) | 5,139 (-0.7%) | 5,057 (-1.3%) |
| 정보통신 | 2,327 (3.7%) | 2,412 (3.7%) | 2,531 (4.9%) | 2,535 (0.2%) | 2,654 (3.3%) | 2,751 (5.9%) | 2,660 (5.1%) |
| 예술·스포츠· 여가 | 2,060 (-12.3%) | 2,357 (14.4%) | 2,551 (8.2%) | 2,644 (4.9%) | 2,660 (-3.8%) | 2,550 (-7.7%) | 2,330 (-8.7%) |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*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3. 창원시 고용보험 자격 취득(취업)·상실(퇴직) 현황

- 2021년 1분기 창원지역 취업자 수는 3만 8,0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.1% 증가했고, 퇴직자는 3만 5,819명으로 6.3% 감소했음. 신규취업자(4,764명)와 경력취업자(3만 3,262명)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.6%, 12.5%로 함께 증가한 가운데, 퇴직자 수는 6.3% 감소하였음.

취업 및 퇴직자 수(전년 동기 대비)

(단위 : 명)

| | '18 | '19 | '20 | | | | '21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1Q | 1Q | 1Q | 2Q | 3Q | 4Q | 1Q |
| 취업자 | 35,461 (5.5%) | 39,310 (10.9%) | 33,626 (-14.5%) | 25,474 (-6.8%) | 29,675 (11.0%) | 26,063 (-4.9%) | 38,026 (13.1%) |
| 신규취업자 | 4,172 (6.7%) | 5,207 (24.8%) | 4,052 (-22.2%) | 2,798 (-7.9%) | 3,469 (8.7%) | 3,047 (-0.7%) | 4,764 (17.6%) |
| 경력취업자 | 31,289 (5.3%) | 34,103 (9.0%) | 29,574 (-13.3%) | 22,676 (-6.6%) | 26,206 (11.3%) | 23,016 (-5.4%) | 33,262 (12.5%) |
| 퇴직자 | 35,379 (8.7%) | 38,534 (8.9%) | 38,243 (-0.8%) | 24,892 (-11.0%) | 25,732 (-2.6%) | 28,045 (12.2%) | 35,819 (-6.3%) |

※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·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, '전분기 피보험자 + 당분기 취득자 - 당분기 상실자'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- 퇴직사유별로 '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'가 45.9%로 가장 많았고, '계약만료·공사완료' 30.1%, '인원감축' 14.0% 등이 뒤를 이었음. 작년 동기 대비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 모두 감소하였음.

2021년 1분기 창원 사유별 퇴직자 수

| 퇴직 사유 | 퇴직자 수 | 비중 | 전년 대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| 16,443 | 45.9% | -4.6% |
| 계약만료, 공사종료 | 10,780 | 30.1% | -8.9% |
| 불황에 따른 해고, 권고사직, 명예퇴직 등 인원감축 | 5,026 | 14.0% | -3.4% |
| 폐업, 도산 | 1,278 | 3.6% | -22.7% |
| 정년 | 1,022 | 2.9% | -3.8% |
| 사업장 이전, 근로조건 변동 등 자진퇴사 | 600 | 1.7% | 21.7% |
|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, 권고사직 | 335 | 0.9% | -24.5% |
| 기타 | 335 | 0.9% | 0.9% |
| 계 | 35,819 | 100% | |

Ⅲ. 시사점

- ◎ 21년 1분기 말 기준 창원지역 상시근로자 수는 25만 4,31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.2% 증가하였음. 눈여겨 볼 점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근로자 수 증가 폭이 컸으며, 특히 제조업은 그 변동폭이 더 크다는 것임. 이는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인력충원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.

*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- 10인 미만 사업장 : 전년 동기 대비 -2.0%(제조업 -14.6%)
-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: 전년 동기 대비 +1.4%(제조업 -2.4%)
-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: 전년 동기 대비 +2.7%(제조업 +0.6%)
- 300인 이상 사업장 : 전년 동기 대비 +3.3%(제조업 +5.9%)

- ◎ 업종별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가 13만 2,9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.0% 증가하였고, 제조업은 10만 8,133명으로 0.9% 감소하였음.
- ◎ 전체 제조업 근로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, 전자부품 관련 업종의 근로자 수는 증가했음. ‘전기장비’(전년 동기 대비 +6.0%), ‘전자부품·컴퓨터·통신장비 등’(+8.8%), ‘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등’(+0.7%)의 근로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 이는 산업 전반에 걸친 전장화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.
- ◎ 고용보험 자격 취득/상실 현황에서는 신규취업자와 경력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.6%, 12.5%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가 큰 폭(+13.1%)으로 증가했고, 퇴직자는 6.3% 감소하였음. 또한 3만 5,819명의 퇴직자 가운데 ‘불황에 따른 해고, 권고사직’(-3.4%), ‘폐업, 도산’(-22.7%) 등 비자발적인 퇴직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전반적인 고용시장이 안정성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